

##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

최 정 혜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 1. 서론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으로 맞벌이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혜신·김경신, 2003; 중앙일보 2003. 12.3).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앞으로 맞벌이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맞벌이가족 문제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맞벌이가족의 경우 아내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인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 역할을 겸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달리 역할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은 취업주부 자신뿐 만 아니라 가정에 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채로·이기영, 2004). 취업주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직업과 가사부담을 병행하는데 따른 시간의 부족 문제로서 이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김혜신 외, 2003), 취업주부의 역할과중, 직장과 가정일 사이의 갈등은 취업주부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신·권오남, 1996; 조희금, 1999; 채로 외, 2004),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전영자, 1997; 채로·이기영, 2004) 맞벌이가족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대표적 역할인 '부양자'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자'역할, 남편으로서의 '배우자'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김소영·옥선화, 2000). 즉 남편의 역할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공유되고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김태현·김양호, 2003; 홍성례·유영주, 2001; Barnett, Marshall, Peck, 1992; O'Neal & Greenberger, 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현·김양호, 2003; 홍성례·유영주, 2001). 그러나 남성들의 실제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김소영외, 2000; 김태현·김양호, 2003), 맞벌이가족 남편의 가족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가족연구에 대해 건강가족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가족을 건강하게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사회성·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이다(유영주, 2004a).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부부가 주중에는 서로 직장생활에 몰입해 바쁜 삶을 산다는 생활양식으로 인해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유의한 관련변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맞벌이부부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의의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 또는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가족건강성을 파악하거나(유영주, 2001),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어은주·유영주, 1995; 유계숙, 2004; 유영주, 2004; 지영숙·이영호, 1998; 최희진·유영주, 2003)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역할갈등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반적인 가족건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가족 전체의 가족건강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맞벌이부부 양쪽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와 가족건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실태를 규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어떠하며, 관련변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맞벌이부부이다. 예비조사는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

지 2주 동안 맞벌이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한 설문지로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경남지역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유의 표집을 하여 20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170쌍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50쌍 총 300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남편(150)  | 아내(150)   | 전체(300)   | 구 분        |                      | N(%)                  |
|------------|----------------|----------|-----------|-----------|------------|----------------------|-----------------------|
| 연령         | 30대            | 47(31.3) | 78(52.0)  | 125(41)   | 자녀수        | 1명                   | 50(16.7)              |
|            | 40대            | 88(58.7) | 65(43.3)  | 153(42.1) |            | 2명                   | 218(72.7)             |
|            | 50대            | 15(10.0) | 7(4.7)    | 22(39.6)  |            | 3명 이상                | 32(10.7)              |
| 교육 수준      | 고 졸            | 21(14.0) | 22(14.7)  | 43(14.3)  | 만이 연령      | 7세이하                 | 40(13.3)              |
|            | 전문대졸           | 3(2.0)   | 14(9.3)   | 17(5.7)   |            | 초 등 생                | 124(41.3)             |
|            | 대 학 졸          | 75(50.0) | 105(70.0) | 180(60.0) |            | 중 · 고 생              | 88(29.4)              |
|            | 대학원졸           | 51(34.0) | 9(6.0)    | 60(20.0)  |            | 대학생 이상               | 48(16.0)              |
| 종교 유무      | 없 음            | 79(52.7) | 55(36.7)  | 134(44.7) | 가사도움 유무    | 없다                   | 206(68.7)             |
|            | 있 음            | 71(47.3) | 95(63.3)  | 166(55.3) |            | 있다                   | 94(31.3)              |
| 직업         | 교수 · 전문직       | 8(5.3)   | 6(4.0)    | 14(4.7)   | 가사를 도우는 사람 | 고용인                  | 32(34.1)              |
|            | 교 사            | 75(50.0) | 115(76.7) | 190(63.3) |            | 남편부모                 | 28(29.7)              |
|            | 관리직(과장이상)      | 18(12.0) |           | 18(6.0)   |            | 아내부모                 | 32(34.1)              |
|            | 사무직 · 공무원      | 21(14.0) | 9(6.0)    | 30(10.0)  |            | 기타                   | 2(2.1)                |
|            | 생산 · 판매 · 서비스직 | 28(18.7) | 20(13.3)  | 48(16.0)  |            |                      |                       |
| 가정의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           | 22(7.3)   | 가족 형태      | 확대가족 핵가족             | 50(17.3)<br>250(82.7) |
|            | 200-300만원 미만   |          |           | 90(30.0)  |            |                      |                       |
|            | 300-400만원 미만   |          |           | 80(26.7)  |            |                      |                       |
|            | 400-500만원 미만   |          |           | 72(24.0)  |            |                      |                       |
|            | 500만원 이상       |          |           | 36(12.0)  |            |                      |                       |
| 결혼 지속 년수   | 5년 미만          |          |           | 22(7.3)   | 확대 가족 유형   | 남편부모와 동거<br>아내부모와 동거 | 36(69.2)<br>16(30.8)  |
|            | 5-10년 미만       |          |           | 38(12.7)  |            |                      |                       |
|            | 10-15년 미만      |          |           | 122(40.7) |            |                      |                       |
|            | 15-20년 미만      |          |           | 72(24.0)  |            |                      |                       |
|            | 20년 이상         |          |           | 46(15.3)  |            |                      |                       |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 ■ 가족스트레스 척도

최정혜(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가사 관련 스트레스, 성

인자녀역할 스트레스 등 4개영역, 총 18문항의 가족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가족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1이다.

#### ■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최정혜(2002)의 척도를 사용하여 5요인(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총 17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2이다.

#### ■ 직업만족도 척도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만들었다.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서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4이다.

#### ■ 결혼만족도 척도

슌(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척도를 연구에 적용한 최정혜(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96으로 나타났다.

#### ■ 자아존중감 척도

Rog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의 척도(2002)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75이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평균, 요인분석, paired t-test,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1)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남편의 가족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4, 아내는 2.98로 중간점인 3점 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나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첫째, 맞벌이부부 형태가 가족생활에 그다지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활유형으로 볼 수 있고, 둘째는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이 교수·전문직과 교사 등이 주류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정도 (N=150쌍)

| 구 분       | 남편(150) |       | 아내(150) |       | paired t-test |
|-----------|---------|-------|---------|-------|---------------|
|           | M       | SD    | M       | SD    |               |
| 전 체 스트레스  | 2.74    | (.67) | 2.97    | (.70) | 3.86**        |
| 부부역할 스트레스 | 2.56    | (.76) | 2.68    | (.78) | 1.73          |
| 가사관련 스트레스 | 2.70    | (.82) | 3.18    | (.91) | 5.64***       |
| 부모역할 스트레스 | 2.87    | (.83) | 3.18    | (.84) | 4.11***       |
| 자녀역할 스트레스 | 2.81    | (.83) | 2.85    | (.74) | .45           |

\*\* p<.01, \*\*\* p<.001

본 연구결과 맞벌이부부 아내가 남편보다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가족생활에서 남편에 비해 역할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김경신·권오남, 1996; 조희금, 1999; 채로의, 2004)에서 취업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이 더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똑같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역할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즉 맞벌이남편과 아내 모두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가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자녀양육이라고 밝힌 선행연구(김소영외, 2000; 김혜신외, 2003; 전영자, 1997)를 지지하는 경향이다.

부부간에 인식차이를 보인 것은 남편은 부모에 대한 '자녀역할 스트레스'를 두 번째 순위로 인식한데 비해 아내는 '가사관련 스트레스'를 두 번째 순위로 인식한 점이다. 한편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 모

〈표 3〉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N=150쌍)

| 관련 변인       |              | 남편(150) |      |         |   | 아내(150)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연령          | 30대          | 47      | 2.74 | .19     |   | 78      | 3.09 | 2.10    |   |
|             | 40대          | 88      | 2.75 |         |   | 65      | 2.85 |         |   |
|             | 50대          | 15      | 2.63 |         |   | 7       | 2.92 |         |   |
| 교육 수준       | 고 졸          | 21      | 2.90 | 2.27    |   | 22      | 3.10 | .57     |   |
|             | 전문대졸         | 3       | 2.22 |         |   | 14      | 2.81 |         |   |
|             | 대 학 졸        | 75      | 2.81 |         |   | 105     | 2.98 |         |   |
|             | 대학원졸         | 51      | 2.58 |         |   | 9       | 2.87 |         |   |
| 종교 유무       | 없음           | 79      | 2.85 | 2.13*   |   | 55      | 3.03 | .75     |   |
|             | 있음           | 71      | 2.61 |         |   | 95      | 2.94 |         |   |
| 자녀수         | 1명           | 25      | 2.69 | .29     |   | 25      | 2.81 | 1.68    |   |
|             | 2명           | 109     | 2.73 |         |   | 109     | 2.98 |         |   |
|             | 3명           | 16      | 2.85 |         |   | 16      | 3.22 |         |   |
| 말이 연령       | 7세이하         | 20      | 2.79 | .86     |   | 20      | 2.84 | 3.48*   | B |
|             | 초등학생         | 62      | 2.83 |         |   | 62      | 3.18 |         | B |
|             | 중·고생         | 44      | 2.64 |         |   | 44      | 2.79 |         | A |
|             | 대학생 이상       | 24      | 2.65 |         |   | 24      | 2.89 |         | B |
| 직업          | 교수·전문직       | 8       | 2.26 | 1.44    |   | 6       | 2.20 | 3.22*   | A |
|             | 교사           | 75      | 2.71 |         |   | 115     | 2.98 |         | B |
|             | 관리직(과장이상)    | 18      | 2.86 |         |   | 9       | 2.97 |         | B |
|             | 사무직·공무원      | 21      | 2.75 |         |   |         |      |         |   |
|             | 생산·판매·서비스직   | 28      | 2.86 |         |   |         |      |         |   |
| 가 정 월수입 정 도 | 200만원 미만     | 11      | 2.94 | 1.17    |   | 11      | 3.39 | 2.50*   | B |
|             | 200-300만원 미만 | 45      | 2.72 |         |   | 45      | 3.04 |         | B |
|             | 300-400만원 미만 | 40      | 2.84 |         |   | 40      | 2.95 |         | B |
|             | 400-500만원 미만 | 36      | 2.71 |         |   | 36      | 2.97 |         | B |
|             | 500만원 이상     | 18      | 2.49 |         |   | 18      | 2.59 |         | A |
| 가족 형태       | 확대가족         | 25      | 2.74 | .05     |   | 25      | 2.84 | -1.22   |   |
|             | 핵 가 족        | 125     | 2.73 |         |   | 125     | 3.00 |         |   |
| 확대가족 유형     | 남편부모와        | 18      | 2.48 | -5.21** |   | 18      | 2.74 | -1.41   |   |
|             | 아내부모와        | 8       | 3.32 |         |   | 8       | 3.07 |         |   |
| 가사 조력자      | 없다           | 103     | 2.72 | - .32   |   | 103     | 2.98 | 21      |   |
|             | 있다           | 47      | 2.76 |         |   | 47      | 2.96 |         |   |
| 결혼 지속 년수    | 5년 미만        | 11      | 2.91 | .55     |   | 11      | 2.88 | 2.85*   | A |
|             | 5-10년 미만     | 19      | 2.66 |         |   | 19      | 3.14 |         | A |
|             | 10-15년 미만    | 61      | 2.79 |         |   | 61      | 3.15 |         | A |
|             | 15-20년 미만    | 36      | 2.68 |         |   | 36      | 2.72 |         | A |
|             | 20년 이상       | 23      | 2.64 |         |   | 23      | 2.82 |         | A |
| 결 혼 만족도     | 높은 집단        | 106     | 2.70 | -1.07   |   | 87      | 2.76 | -4.97** |   |
|             | 낮은 집단        | 44      | 2.83 |         |   | 63      | 3.28 |         |   |
| 자 아 존중감     | 높은 집단        | 66      | 2.70 | - .58   |   | 60      | 2.93 | - .61   |   |
|             | 낮은 집단        | 84      | 2.76 |         |   | 90      | 3.00 |         |   |

\* p<.05, \*\* p<.01.

두 아내가 남편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아내의 가족역할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부역할과 자녀역할 스트레스는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종교(p<.05)와 확대가족 유형(p<.05)이, 아내는 만이의 연령(p<.05), 직업(p<.05), 가정의 월 수입 정도(p<.05), 결혼지속년수(p<.05), 결혼만족도(p<.01)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은 종교가 없을 때 그리고 아내부모와 함께 살 때 가족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부부 아내는 만이의 연령이 초등학교일 때,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 직일 때, 가정의 월수입정도가 200만 원이하 일 때, 결혼지속년수가 10년-15년미만 사이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일 때 가족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요인분석

(N=300)

| 문항번호                  | 요인 1  | 요인 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h <sup>2</sup> |
|-----------------------|-------|-------|-------|-------|-------|----------------|
| 36                    | .263  | .696  | .020  | .020  | .010  | .563           |
| 37                    | -.111 | .690  | .104  | .010  | .180  | .532           |
| 38                    | .260  | .128  | .234  | .160  | .467  | .383           |
| 39                    | -.020 | .020  | .890  | .136  | .010  | .825           |
| 40                    | -.020 | -.020 | .123  | .775  | .107  | .630           |
| 41                    | .367  | .556  | .020  | .229  | -.010 | .501           |
| 42                    | .253  | .492  | .237  | -.259 | .205  | .471           |
| 43                    | .692  | .138  | .150  | .128  | .108  | .549           |
| 44                    | .182  | .158  | .020  | .795  | .020  | .698           |
| 45                    | .530  | .450  | -.020 | .285  | -.010 | .572           |
| 46                    | .784  | .134  | .020  | -.020 | .010  | .640           |
| 47                    | .107  | .156  | .881  | .010  | .030  | .816           |
| 48                    | .327  | .509  | .020  | .020  | .356  | .503           |
| 49                    | .780  | .020  | -.020 | -.010 | .250  | .680           |
| 50                    | .575  | .242  | .101  | .295  | .131  | .504           |
| 51                    | .350  | -.168 | -.101 | .407  | .566  | .647           |
| 52                    | -.030 | .322  | -.020 | -.020 | .755  | .681           |
| 고유치                   | 4.722 | 1.767 | 1.552 | 1.151 | 1.000 |                |
| 누가변량 (%)              | 27.78 | 38.17 | 47.30 | 54.07 | 59.96 |                |
| KMO                   |       |       | .799  |       |       |                |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       |       | .000  |       |       |                |

요인1: 인지 재구조화, 요인2: 역할분담, 요인3: 관리활동, 요인4: 정서적 지원, 요인5: 취미활동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은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지재구조화,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KMO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높고(0.6이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깊어서 요인분석 조건을 충족함을 보여준다(부록참고).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총체적인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이 평균 3.41, 아내는 3.45로 나타나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인지재구조화' 전략이 가장 높고, 다음이 '역할분담', '취미활동',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남편은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인지재구조화'를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김명자, 1991; 최규련, 1994; 최혜경·노치영, 1994)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5>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N=150쌍)

| 대처전략    | 남편(150) |       | 아내(150) |       | paired t-test |
|---------|---------|-------|---------|-------|---------------|
|         | M       | SD    | M       | SD    |               |
| 전 체     | 3.42    | (.52) | 3.45    | (.44) | .78           |
| 인지 재구조화 | 3.89    | (.53) | 3.98    | (.46) | 1.98*         |
| 역할분담    | 3.55    | (.71) | 3.52    | (.71) | .38           |
| 관리활동    | 3.12    | (.70) | 3.18    | (.67) | .88           |
| 정서적 지원  | 2.60    | (.95) | 3.01    | (.93) | 4.50***       |
| 취미활동    | 3.14    | (.99) | 2.76    | (.97) | 4.04***       |

\*\*\* p<.001

아내는 '인지재구조화',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아내 역시 '인지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이현주, 1997; 전영자,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결과 맞벌이남편과 아내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인지 재구조화'로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하므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역할분담' 전략으로 맞벌이부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김경신의, 1996; 서혜영의, 1999)에서 맞벌이부부가 주말이 되면 주중에 처리하지 못하고 밀어두었던 가사노동을 가족과 함께 분담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역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것은 '정서적 지원'과 '취미활동' 전략이다. '정서적 지원' 전략은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 6>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N=150)

| 관련 변인     |              | 남편(150) |      |         |   | 아내(150) |      |         |   |      |
|-----------|--------------|---------|------|---------|---|---------|------|---------|---|------|
|           |              | N       | M    | F(t)    | D | N       | M    | F(t)    | D |      |
| 연령        | 30대          | 47      | 3.46 | .32     |   | 78      | 3.40 | .38     |   |      |
|           | 40대          | 88      | 3.40 |         |   | 65      | 3.42 |         |   |      |
|           | 50대          | 15      | 3.35 |         |   | 7       | 3.48 |         |   |      |
| 교육 수준     | 고 졸          | 21      | 3.05 | 9.35*** | A | 22      | 3.48 | .76     |   |      |
|           | 전문대졸         | 3       | 3.27 |         |   | B       | 14   |         |   | 3.47 |
|           | 대 학 졸        | 75      | 3.35 |         |   | B       | 105  |         |   | 3.28 |
|           | 대학원졸         | 51      | 3.67 |         |   | B       | 9    |         |   | 3.44 |
| 종교 유무     | 없음           | 79      | 3.40 | -.23    |   | 55      | 3.48 | .56     |   |      |
|           | 있음           | 71      | 3.42 |         |   | 95      | 3.43 |         |   |      |
| 자녀수       | 1명           | 25      | 3.42 | .40     |   | 25      | 3.41 | .55     |   |      |
|           | 2명           | 109     | 3.43 |         |   | 109     | 3.47 |         |   |      |
|           | 3명           | 16      | 3.31 |         |   | 16      | 3.38 |         |   |      |
| 말이 연령     | 7세이하         | 20      | 3.49 | .33     |   | 20      | 3.48 | .48     |   |      |
|           | 초등학생         | 62      | 3.40 |         |   | 62      | 3.40 |         |   |      |
|           | 중·고생         | 44      | 3.37 |         |   | 44      | 3.49 |         |   |      |
|           | 대학생 이상       | 24      | 3.45 |         |   | 24      | 3.47 |         |   |      |
| 직업        | 교수·전문직       | 8       | 3.57 | 5.11*** | B | 6       | 3.72 | .95     |   |      |
|           | 교사           | 75      | 3.51 |         |   | B       | 115  |         |   | 3.45 |
|           | 관리직(과장이상)    | 18      | 3.38 |         |   | B       |      |         |   |      |
|           | 사무직·공무원      | 21      | 3.52 |         |   | B       | 9    |         |   | 3.44 |
|           | 생산·판매·서비스직   | 28      | 3.05 |         |   | A       | 20   |         |   | 3.37 |
| 가정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11      | 3.25 | 2.39    |   | 11      | 3.39 | 3.20**  | A |      |
|           | 200-300만원 미만 | 45      | 3.24 |         |   | 45      | 3.36 |         |   |      |
|           | 300-400만원 미만 | 40      | 3.47 |         |   | 40      | 3.35 |         |   |      |
|           | 400-500만원 미만 | 36      | 3.52 |         |   | 36      | 3.59 |         |   |      |
|           | 500만원 이상     | 18      | 3.57 |         |   | 18      | 3.66 |         |   |      |
| 가족 형태     | 확대가족         | 25      | 3.38 | -.44    |   | 25      | 3.37 | -1.16   |   |      |
|           | 핵가족          | 125     | 3.42 |         |   | 125     | 3.46 |         |   |      |
| 확대가족 유형   | 남편부모와        | 18      | 3.46 | 1.54    |   | 18      | 3.45 | 2.23*   |   |      |
|           | 아내부모와        | 8       | 3.18 |         |   | 8       | 3.19 |         |   |      |
| 가사 조력자    | 없다           | 103     | 3.41 | -.25    |   | 103     | 3.47 | .81     |   |      |
|           | 있다           | 47      | 3.43 |         |   | 47      | 3.41 |         |   |      |
| 결혼 지속 년수  | 5년 미만        | 11      | 3.50 | .18     |   | 11      | 3.35 | .27     |   |      |
|           | 5-10년 미만     | 19      | 3.48 |         |   | 19      | 3.44 |         |   |      |
|           | 10-15년 미만    | 61      | 3.40 |         |   | 61      | 3.45 |         |   |      |
|           | 15-20년 미만    | 36      | 3.39 |         |   | 36      | 3.50 |         |   |      |
|           | 20년 이상       | 23      | 3.41 |         |   | 23      | 3.43 |         |   |      |
| 결혼 만족도    | 높은 집단        | 106     | 3.52 | 3.88*** |   | 87      | 3.56 | 4.00*** |   |      |
|           | 낮은 집단        | 44      | 3.16 |         |   | 63      | 3.29 |         |   |      |
| 자아 존중감    | 높은 집단        | 66      | 3.62 | 4.52*** |   | 60      | 3.61 | 3.87*** |   |      |
|           | 낮은 집단        | 84      | 3.25 |         |   | 90      | 3.34 |         |   |      |

\*\* p<0.01, \*\*\*p<.001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의 경우 친구, 이웃으로부터 정신적 지원을 찾는 경향이 남편보다 높은 경향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장적인 문화에 젖어있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정서적 지원' 전략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정서적 지원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선행연구(최규련, 1994)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취미활동' 전략은 맞벌이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직장을 중심으로 가족보다는 바깥을 선호하고 활동하는 한국적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즉 남편의 경우 가족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생활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아내의 경우는 직장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취미생활이라는 여유는 거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갈등대처방법으로 남편은 행동표출을, 부인은 외부도움요청과 신앙에 의지한다는 연구(이현주, 1997)와 일치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관련변인은 <표 6>과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은 교육수준( $P<.001$ ), 직업( $P<.001$ ), 결혼만족도( $P<.001$ ), 자아존중감( $P<.001$ )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가정의 월수입 정도( $P<.001$ ), 확대가족 유형( $P<.05$ ), 결혼만족도( $P<.001$ ), 자아존중감( $P<.001$ )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정도가 높고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이 아닐 경우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각각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월수입정도가 300만원이상 집단이 그 미만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고, 아내가 친정부모보다 남편부모와 함께 살 때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았으며,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각각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및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및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 아내는 3.89로 나타나 중간 점수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본 결과는 맞벌이아내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직업에 대한 만족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김경신·김오남, 1996; 서혜영·이숙현, 1999; 홍성례·유영주, 2001; Pleck, 1985; Galambos & Sibereisen, 1989)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7>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N=150쌍)

| 구 분       | M    | SD    | 백분위 점수 | paired t-test |
|-----------|------|-------|--------|---------------|
| 남편의 직업만족도 | 3.72 | (.82) | 74.4   | 2.20*         |
| 아내의 직업만족도 | 3.89 | (.65) | 77.8   |               |

\* p<.05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Durbin-Watson 계수가 1.961이고 아내는 2.064로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341$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역할분담 대처전략,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역할분담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직업이 전문직일 때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 3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36%로 나타났다.

<표 8>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N=150쌍)

| 변 인            | 남편(N=150) |         |                | 변인             | 아내(N=150) |         |                |
|----------------|-----------|---------|----------------|----------------|-----------|---------|----------------|
|                | B         | $\beta$ | R <sup>2</sup> |                | B         | $\beta$ | R <sup>2</sup> |
| 자아존중감          | .418      | .341    | .213           | 인지재구조화         | .481      | .341    | .216           |
| 역할분담           | .313      | .272    | .301           | 교육수준           | .160      | .198    | .270           |
| 직업             | -.157     | -.244   | .356           | 역할분담           | .166      | .183    | .303           |
|                |           |         |                | 자아존중감          | .183      | .172    | .329           |
| 상 수            | 1.489     |         |                | 상 수            | 1.279     |         |                |
| F              | 26.933*** |         |                | F              | 17.737*** |         |                |
| R <sup>2</sup> | .356      |         |                | R <sup>2</sup> | .329      |         |                |
| D-W계수          | 1.754     |         |                | D-W계수          | 2.064     |         |                |

\*\*\* p<.001

맞벌이부부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 $\beta=.341$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수준, 역할분담,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아내의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할분담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이, 아내의 직업만족도에는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직업만족도 영향변인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변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해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업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남지역의 맞벌이부부 150쌍, 총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2.74, 아내는 2.98점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음을 보였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역할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가 가족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이 '부모역할'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소영·옥선화, 2000; 김혜신·김경신,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맞벌이부부의 해결과제로서 부각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부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인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두 영역 모두 아내의 스트레스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맞벌이아내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남편은 종교, 확대가족 유형이, 아내는 말이의 연령, 직업, 가정의 월수입정도, 결혼지속년수, 결혼만족도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3.41, 아내는 3.45로 높게 나타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인지재구조화' 전략이 가장 높고, '정서적 지원' 전략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인지재구조화' 전략은 남편과 같이 첫 번째로 높고 '취미활동' 전략이 가장 낮게 나타나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인지 재구조화'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남편은 교육수준, 직업,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가정의 월수입정도, 확대가족 유형,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3.72, 아내는 3.89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변인은 '인지 재구조화'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맞벌이부부가 직장과 가족생활을 잘 병행하여 큰 스트레스 없이 잘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대상자들 주류가 교사나 연구직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적인 맞벌이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고 자원이 많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하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가족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1순위로 나타난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든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맞벌이부부 관련 정책에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가 인식차이를 보인 '가사관련 스트레스'에 관해서 맞벌이아내는 스트레스가 큰 데 비해 맞벌이 남편은 낮게 나타나 부부간의 갈등 측면을 암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영역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연구과제로 보인다.

둘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높게 나타나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전략으로 맞벌이남편과 아내가 모두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부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취미활동'과 '정서적 지원' 대처전략은 남편은 바깥생활 중심으로, 아내는 심리적인 지원 요청의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행동양상의 차이점을 밝혀 부부간의 이해를 도우고 부부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맞벌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유의한 변인은 몇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바람직하게 생각되었으며,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의 가장 큰 영향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인식 차이를 시사한다하겠다. 특히 맞벌이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나타난 것은 맞벌이아내의 가족생활 관리양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직업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아내에게 어떠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맞벌이아내가 직장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적용시키는 데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교사 등 전문직종이 많아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 ■ 참고문헌

- 고정자·김갑숙(1996).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권 1호, 203-216.
-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 김양호·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81-94.
- 김태현·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할,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권 1호, 99-120.
- 김혜신·김경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권 4호, 3117-131.
- 서혜영·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257-280.
- 양순미(2003).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부부문제해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31-49.
-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권 2호, 145-158.
-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혜경·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한경혜(1998). 중년기남성의 역할중요도와 일/가족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 홍성례·유영주(2001). 기혼남성의 가족·직업 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9-134.
- Barnett, R. C., Marshall, Nancy L., and Peck, J.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pp.358-367.
- Beutell, N. J. & Greenhaus, J. H.(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43-48.
- Ferree, M.(1976). Working class jobs: house work and paid work as sources of satisfaction. *Social Problems*, 23, 1185-1193.
- Galambos, N. L. & Sibereisen. R. K.(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23-330.
- Heckman, N. S., Bryson, R. & Bryson, J.(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x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23-330.
- Kelly, R. F. & Voydanoff, P.(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3), 367-37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 O'Neal, R. &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Pleck, J. H.(1993). Are "Family-supportive" employer policies relevant to men? In J. C. Hood(Ed.), *Men, Work and Family*(pp.217-237). Newbury park, CA:Sage
- Thomas, S., Albrecht, K. & White, P.(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4), 513-522.

<부록> 요인분석 문항내용

| 문항번호 | 문 항 내 용                              |
|------|--------------------------------------|
| 36   | 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 37   | 집안 일 관리가 힘들 때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한다.       |
| 38   |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미리 스케줄을 잡아둔다.      |
| 39   | 가끔씩 힘들면 나의 감정을 친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
| 40   | 생활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하러간다.                |
| 41   | 나는 맞벌이 부부도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 42   | 집안일은 서로 협력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43   | 생활에서 지치면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
| 44   |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활동시간을 갖는다.               |
| 45   | 나는 맞벌이 부부의 단점보다 좋은 점만 생각한다.          |
| 46   | 주말에 집안 일이 밀렸을 때는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 서로 도운다. |
| 47   | 힘들 때 나의 감정을 선배나 친한 이웃에게 이야기한다.       |
| 48   | 맞벌이 부부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49   | 우리부부는 집안일을 서로 잘 협력해서 행하고 있다.         |
| 50   | 힘들 때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한다.  |
| 51   |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화나 전시회 등을 보러간다.           |
| 52   |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한다고 생각한다. |